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5.17~2017.5.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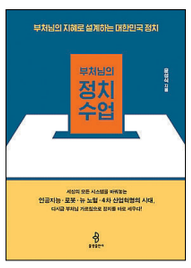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佛法에 현실정치 대입하면 이상국가 드러나

부처님의 정치수업

윤성식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상적 사회와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부처님 법(法)으로 만든 세상, 또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정치는 어떤 그림일까?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를 풀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 책 〈부처님의 정치 수업〉은 이런 고민서 출발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정치에 대입해 적용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국가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은 양극단을 버리고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중도(中道)국가다. 법치를 근간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정법(正法)국가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복지국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서 끊임없이 최적의 정책을 모색한 혁신국가의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2015년 〈부처님의 부자 수업〉을 펴내며 경제계와 불교계서 큰 반향을 일으킨 고려대 윤성식 교수〈사진〉다. 그의 전공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미국 오하이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일리노이대 회계학 석사, UC버클리대 경영학 박사, 동국대 불교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경력으로는 텍사스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거 〈부처님의 부자 수업〉이 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을 현대의 삶에 적용했다면, 〈부처님의 정치 수업〉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정치 문제를 불교의 중도사상과 연기적 세계관에 대입해 해법을 제시한다. 이 두 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신선함과 정직함이다. 그동안 불교가 회피하고 껄끄럽게 여긴 돈과 정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경제와 정치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불교계에서는 세속적이라는 편견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주제이기에 언급을 꺼렸다.

윤성식 교수는 불교학 박사로서, 경제·경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치혁신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아울러서 불교적 해법을 도출해낼 적임자다. 윤성식 교수의 언어는 전문적이거나 어렵지 않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 언어다.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 직설의 언어다. 업(業), 공(空), 연기(緣起), 중도(中道) 등의 불교사상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 녹여낸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이론적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치혁신과 재벌개혁을 비롯해, 경제, 복지, 외교, 안보, 행정, 민생, 의료, 교육, 환경, 노동 등 정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총 망라돼 있다.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다보면 우리 정치가 무엇이 잘못되고 부족한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 정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보면 세상을 인식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며 정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



양극단 버린 중도 국가
법치 근간한 정법 국가
생존권 보장한 복지 국가

〈숫타니파타〉서 "살아 있는 존재는 다 행복하라"고 했다. 행복은 나와 세상의 변화로 가능한 꿈이며, 세상을 가장 쉽고 빠르게 변화시키는 정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증서 벗어나 정치의 긍정적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자각이다. 이 책은 불교와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와 적절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풀어썼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정치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며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인지, 부처님 말씀에 대입해 방법론적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기기와 인간의 융합으로 이뤄진 제 4차 산업혁명은 지진해일처럼 우리를 덮쳐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을 것이다. 혁명적 변화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이뤄온 눈부신 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불교는 계급을 부정하고 여성 출가를 허용한 개혁종교이며, 세계의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전통과 결합해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다양성과 유연성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제행무상의 세계서 다양성과 유연성이야말로 생존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에 다양성과 유연성이 담보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걱정보다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다.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제기된 정책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경전에 나타난 이상국가는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수준이다. 현대의 북유럽국가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심지어 〈증일아함경〉에는 부처님이 왕에게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주며 갖가지로 보시하되…"라고 설한다. 배우자의 주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생존의 기본권이라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실정치에 제시한 불교의 8가지 해법

1. **유연성**=불교는 이분법과 흑백논리를 배격하며 집착을 경계하니, 변화에 유연해 진다.
2. **다양성**=불교는 정답이 있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과 환경에 따라 오직 임시적인 결과만이 존재한다고 믿기에 다양성을 지향한다.
3. **개방성**=불교는 각 지역의 전통신앙마저 흡수할 정도로 포용적이며, 타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는다. 따라서 개방성은 포용성을 포함한다.
4. **합리성**=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주장이라고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이치에 맞으면 수용하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法)에 의존하라는 말씀 또한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5. **합법성**=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국가는 정법국가이므로 모든 정책은 법치행정에 기초해야 한다. 부처님 또한 나라의 법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6. **민주성**=불교 교단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으며 반드시 투표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집단적으로 모여 잘못을 반성하고 대화하는 정신으로 교단이 운영됐다. 교단 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1인 1표를 행사했기에 민주성은 평등성을 포함한다.
7. **혁신성**='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불교이기에,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불교적일 수가 없다. 부처님은 계율을 제정할 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수정 보완했다.
8. **자비성**=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불교경전에 나타난 정부는 자비로운 정부이며, 정부의 정책은 약자의 생존기본권을 보장하는 자비로운 정책이다.

의천의 불교 사상 당시 맥락으로 탐구

대각국사 의천연구

무원, 진관 공저 | 운주사 펴냄 | 1만 6천원



고려는 장구한 한국불교 역사서 또는 불교국가라 칭할 만큼 불교가 융성했다. 이 책은 고려 문종부터 숙종까지 5대에 이르는 왕의 기록을 중심으로 당대 역사를 살펴보면서,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해동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을 고찰했다. 원효의 사상을 이어받아 불교 융합을 이끌었으며, 고려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정초하고 제시한 대각국사 의천의 삶과 사상을 당시의 역사적, 사상적 맥락으로 탐구한 것이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장려했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 계층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가 됐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활약한 승려 중 대각국사 의천(義天)은, 가야를 통해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후 1,900여 년에 이르는 장구한 한국불교 역사서 한 봉우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그가 화엄종을 비롯한 교종과 선종을 아우르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최초로 고려속장경을 간행한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서는 의천이 한국불교서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에 비해 구체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 책은 문종의 넷째 왕자로서 화엄종으로 출가하고 송나라에 구법 유학해 중국불교와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고려불교를 새롭게 일신하고 크게 융성시킨 대각국사 의천의 생애와 불교수행 전 과정을 탐구하고, 이와 연관해 고려 문종 시대의 불교사 및 불교사상을 역사적 전개를 따라가면서 탐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의천의 사상에 대해 논하기보다, 그가 편집한 중국과 한국의 불교 관계 저술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3권에 대한 분류 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의천의 불교사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또는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천의 출가 정신과 불교 학문에 대한 열정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천의 출가 정신관과 실천관에 대해 고찰하고, 출가 이후 송나라 구법 활동을 통해서 수집했던 장소(章疏)에 관해 살피고, 다음으로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3권의 역사성을 새롭게 고찰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들을 제시한다.

첫째, 의천은 출가 이후 20여 년 간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대한 장소를 수집했는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보고, 특히 의천이 장소를 수집하려던 결정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찰했다.

둘째, 의천의 사상이 과연 화엄종인가 천태종인가 하는 점을 고찰했다. 이는 의천이 화엄종으로 출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태종에 대한 관심을 가

대각국사 의천 활동 고찰
원효사상 이어 융합 이끌어
고려불교의 새 지평 열어

진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의천의 사상에 더욱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천은 균여의 저서 목록을 장소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넷째, 의천이 신라의 원효에 대한 장소의 목록을 작성하면서도 일본 승려들의 저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여러 관점서 문제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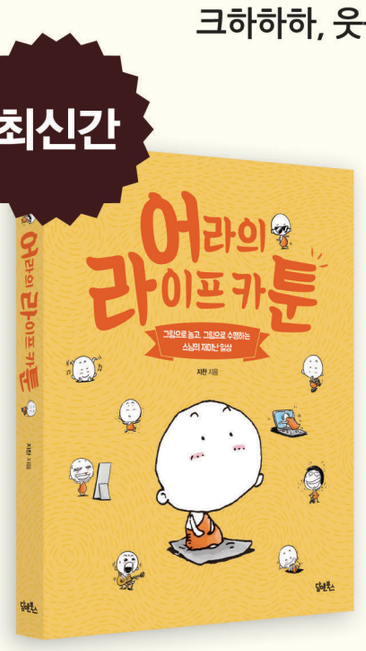
한편, 의천은 원효를 지극히 숭상했는데, 사실 의천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원효의 존재는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원효를 받들고 원효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한 노력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고려불교의 초기와 중기에 걸쳐 불교 전적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통불교적인 해동 천태종을 창종함으로써 고려불교를 쇄신한, 한국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대각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 이 책이, 선과 교를 아우르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풍 형성에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월간 해인」 편집장이자 시 짓는 수행자
도정 스님 산문집
사랑하는 벗에게 보내는 마음 편지
최신간


시인의 눈과 수행자의 가슴으로 본
자연과 사람, 세상사에 대한 통찰이 담긴 117편의 편지글
도정 스님이 "심중 깊은 곳에서 길어 낸 사랑과 위로"의 말
사랑하는 벗에게
도정 글, 김화정 그림 | 240쪽(올컬러) | 14,500원

그림으로 놀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스님의 재미난 일상
크하하하, 웃음 뒤 찾아오는 지혜와 감동
최신간


만화 그리는 스님이 나타났다!
아이폰 유저로 전기 자전거로 세상을 누비고,
팟캐스트를 하는 어라 스님!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은
스님의 마음, 세상, 사람 이야기.
어라의 라이프 카툰
지찬 지음 | 288쪽(올컬러) | 13,000원
전화 (02)765-1251 담앤북스